

대중을 위한 디자이너적 감성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시 여성행복도시지원사업

'성동-한양 여행디자인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Designer Like Sensitivity Training for the General Public

-Focalizing on the Seoul city's City for Women's Happiness project,

"Sungdong/Hanyang Women's Happiness Design School" case study-

현은령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디자인학전공 교수

Hyun eun-ryung

Hanyang university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서론

2. 프로그램 소개

- 2-1. 프로그램 취지 및 목적
- 2-2. 시기 및 대상

3. 프로그램 배경

- 3-1. 서울시 <여성행복도시 > 프로젝트
- 3-2. <디자인 수도 서울> 프로젝트
- 3-3. 목차소제목

4. 대중을 위한 디자이너적 감성교육 사례연구

“한양-성동 女幸디자인 스쿨”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女幸디자인 스쿨”은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관(市)·학(大學)이 협력하여 개발한 대중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기존의 여성가족분야뿐만 아니라 교통·주택·문화 등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정책기획 및 입안단계부터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여성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여성행복도시’와 ‘2010 디자인수도’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이러한 두 가지 서울시 행정정책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과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시도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공공디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체험교육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도시 공간속에서 삶을 꾸려가고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을 위한 디자이너적 감성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인 삶과 연계된 예술교육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것을 성찰하는 사회적 도구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앤드슨(Anderson, T)의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디자인-공예 분야를 사회재건주의의 적합한 예술교육적 도구로 사용하였다(2002, pp.33~39). 생활디자인, 공공디자인, 디자인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감성을 파는 21세기 디자인 수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창의적이고 감성친화적인 행복도시 만들기에 여성 스스로가 역량 있는 시민 큐레이터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대중디자인교육,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 디자인수도 서울)

Abstract

The main administrative project of Seoul city in the year 2009 can be narrowed down to "The City for Women's Happiness Project" and "Seoul, Capital City of Design Project." These two main projects have a common denominator, "the sensitivity", and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The City for Women's Happiness Project" is a project in which the Seoul city government strives to transform the city into a place where women can be happy by reflecting the women's perspectives in all administrative work. This project uses the belief that if women (housewive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families are happy, then the entire family and even all the citizens can be happy, as its foundation. In the midst of the design being recognized as a determining factor for a nation's competitiveness, the "Seoul, Capital City of Design Project" fin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s purpose is for the city to be the leader and develop the economy, and improve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by utilizing designs. The city is hosting various events such as the Seoul Design Olympics and pushing forward with many public design projects as the city was designated as the 2010 World Design Capital.

Therefore, the "Sungdong/Hanyang Women's Happiness Design School" case study which this particular study focalizes on was an attempt of the Seoul city to create a synergy effect that the individuals and the society can be happy by putting together the aforementioned two projects. So far, the projects that had to do with designs consisted of projects in which the public institutions focused on the public design and the administrators putting a focus on the design experience training for students.

However, the designer like sensitivity training programs targeting women who live in the city's space and are solely in charge of educating their children were non-existent. It is expected that from the city's efforts, the women will understand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21st century city design projects such as life design, public design, and design training educational programs, and their increased participation is also expected to make women into competent curators when making the creative and sensitivity friendly happy city.

Keyword

(Design-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omen's Happiness Project, Seoul, Capital City of Design Project)

1. 서론

민선 4기(2006년~2010년) 서울특별시의 행정 프로젝트의 핵심은 '여성행복도시'와 '디자인수도 서울'로 축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감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여성행복도시'란 서울시의 모든 행정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기로 하고, 그 결과로 서울시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시정의지를 실천하는 프로젝트이다. 즉,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주부)이 행복하면 가정 전체, 나아가 국가의 행복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수도 서울' 프로젝트는 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 중심이 되어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특별시는 2010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지정됨으로써 서울디자인올림픽과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공공디자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성동-한양 女幸 디자인스쿨' 사례는 이러한 두 가지 서울시 행정정책을 접목하여 개인과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동안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공공디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체험교육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정책을 가장 많이 접하는 대상이자,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적 감성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예술교육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킹 맥피(McFee, J.)의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배경으로 생활디자인, 공공디자인, 문화디자인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감성을 파는 21세기 디자인 수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이너적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1986, pp.6~16).

결과적으로 창의적이고 감성친화적인 행복도시 만들기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여 여성 스스로가 역량 있는 시민 큐레이터로서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프로그램 소개

2-1 프로그램 취지 및 목적

“성동-한양 女幸 디자인스쿨”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여성행복도시’와 ‘2010 디자인수도’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러 영역에서 남성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남성들이 주도적이었던 법조계, 재계, 정치계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향상된 듯 보인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¹⁾,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여전히 고용시장 전반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각종 집안일 가운데 일상생활비 지출이나 자녀의 양육·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로 아내인 여성의 몫이라는 점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의 구조는 기존의 여성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의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된 여성정책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성차별 극복과 평등이념이 주요 지향점이었다. 이런 기존의 여성정책은 도시계획, 도로, 교통, 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과 도시생활인으로서 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민선 4기 서울시의 여성정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일명 여행(女幸)프로젝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지고 있는 “성동-한양 女幸 디자인 스쿨”은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선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지원 사업으로서,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기존의 여성가족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주택·문화 등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정책기획, 입안단계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여성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사소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감성을 파는 ‘2010 디자인수도 만들기 디자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2 시기 및 대상

본 논문에서 다루지고 있는 “성동-한양 女幸디자인 스쿨”은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의 취지와 부합되어 2009년 4월 <대학 등 평생교육관과 지역 간 협력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었다. 사업기관은 자치단체로는 ‘성동구’이며 대학기관으로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이다. 교육시간은 2009년 9월~12월 동안 매주 3시간(화요일 10시-1시)씩 16주 동안 진행되었다.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50명이며,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였다. 강의실 사정상 50명으로 수강생을 제한할 정도로 예상 밖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표1] 참조

구분	성별 (여)	비고
등록인원	50명(100)	여성전문교육
평균연령	52.7세	

[표 1] 여행 디자인스쿨 신청자

특히 성동구는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을 비롯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디자인거리 사업인 ‘공공 시설물 표준 디자인’²⁾ 개발, 살곳이 다리와 같은 성동구 역사성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콘텐츠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그동안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區)이다.

따라서 본 과정을 수강하는 성동구민 여성은 ‘디자인 문화 거리 사업 프로젝트’를 비롯한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정책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양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교육을 통해 디자이너적인 감성을 함양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및 이웃에게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마인

1) 통계청,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8

2) 벤치, 보안등, 보호펜스, 가로 화분대, 소형 휴지통, 가로수 보호덮개 등 공공 시설물 6종에 대한 디자인 매뉴얼

드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프로그램 배경

3-1 서울시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

민선 4기 서울시의 여성정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기존의 여성가족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주택·문화 등 도시생활 전반에 걸쳐 정책기획, 입안단계부터 반영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여성정책명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 중심의 여행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해왔던 보육, 소외여성보호, 일자리창출을 비롯하여 도시생활의 편리함, 문화적 넉넉함까지 아우르는 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3일에는 5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CSW)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女幸 프로젝트)’의 성과와 여행 동반자를 통해 구축한 ‘젠더 거버넌스 모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기구 전문가 및 관련 학계전문가, 해외 대도시 여성정책 전문가들 앞에서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업 내역은 다음의 [표 2] 와 같다.

돌보는 서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을 위한 영유아플라자 설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급식당반 고민을 덜어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6개 사업을 운영. 특히 육아경험이 없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한다.
일있는 서울	일자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맘프러너 창업스쿨, 맞춤형 여성 직업교육 확대 등 12개 사업.
넉넉한 서울	놀이방 설치와 같은 문화시설 여성편의시설 개선사업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
안전한 서울	여성을 위한 콜택시 운영,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등 9개 사업.
편리한 서울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성 우선주차구획 설치 등 37개 사업.

[표2] 여행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역3)
(女幸, women friendly city project)

특히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은 여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이힐 굽이 빠지기 쉬운 보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는 그동안 간과하고 지나갔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들이 발견하였다. 특히 그동안 한국사회는 남성주의의 사회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주요 행정사업에 여성의 의견의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여성의 아이디어로 생활속 불편을 줄여주는 것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 예로 아래 [그림 1] 과 같은 화장실 개선 사업은 단순히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사용 패턴과 특성을 배려한 공공시설 환경개선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2, 3] .



[그림 1] 여행(女幸) 화장실



[그림 2] 여행(女幸) 화장실의 전자 탈취기



[그림 3] 경사각 거울과 동작센서 수도전

이렇듯 앞으로 여행도시 프로젝트는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사소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수요자인 여성 또는 시민에게 직

3) 서울시 공식블로그 <http://blog.seoul.go.kr/tag/> (2009.11.25)

접 제안 받음으로써 여행프로젝트의 완전을 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전문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적 감성을 지닌 시민양성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질 높은 도시환경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3-2 <디자인수도 서울> 프로젝트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와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그 중요성과 효용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04년 Icsid 집행위원회는 디자인을 매개로 도심재생을 꾀한 도시를 치하할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세계디자인수도(WDC)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세계디자인수도(WDC)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성과가 뛰어나고, 그러한 디자인 비전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 각지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사회, 문화, 경제적 삶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세계디자인수도국제경쟁(WDC Competition)을 실시하여 선정한다.⁴⁾



[그림 4] 세계디자인수도(WDC) 공식 로고

국제디자인연맹(IDA, International Design Alliance)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한 번 선정되면 1년간 세계디자인수도 자격을 유지한다. 이탈리아의 '토리노(TORINO)시'가 2008년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2007년 10월 21일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식경쟁을 거쳐 선정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교류도시, 미래형 디자인 산업도시, 디자인 창의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일류 디자인도시로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 일정을 가지고 있다. [표3] 참조

<p>2008 세계디자인수도 기본구축기</p>	<p>2010세계디자인수도_서울 추진조직 구성/ WDC 추진사업별 콘텐츠 및 로드맵 개발 /2010년 행사를 위한 사전 예비 행사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시행</p>
<p>2009 세계디자인수도 준비성숙기</p>	<p>2010년 행사를 위한 사전예비행사 개최 및 해외 홍보 마케팅 확대 /디자인 국제교류 활성화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및 관광기반 구축</p>
<p>2010 세계디자인수도 구현기</p>	<p>개막식, 디자인올림픽 등 국제행사 개최/ 세계적인 수준의 컨퍼런스, 전시회 유치 개최 /디자인산업 고도화 및 관광산업 발전 도모</p>
<p>2011~ 세계디자인수도 이후 단계</p>	<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정착/ 월드 디자인마켓, 서울디자인워크 등 국제 디자인행사의 정착 및 국가브랜드화/ 세계적인 디자인 거점도시로, 디자인 교류의 중심으로 도약</p>

[표 3]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추진계획

4. 대중을 위한 디자이너적 감성교육 사례연구

: “성동-한양 女幸디자인 스쿨”

본 논문에서 논의되어 있는 “성동-한양 女幸디자인 스쿨” 과정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성동구(關)와 한양대학교(學)이 주체로 하여 개발된 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표4] 참조

	자치구	대학
프로그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및 지원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홍보 • 프로그램 질 평가 • 교강사섭외 및 교육
교육생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집, 선정 • 교육신청 및 접수 • 학습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보 제공/상담 • 학습자 평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실행 및 결산 보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의 교육기자재 사용 • 교육장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시설 개방

[표 4] 참여주체와 분담내용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한양대학교 디자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디자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디자인교육을 통해 창의성, 유창성, 정교성, 협응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극, 영화, 글쓰기를 통한 다양한 사고추리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디자인 감상교육을 강화하고, 교실 속에서만 이루어지

4) <http://www.worlddesigncapital.com/> (2009.11.25)

는 이론 수업이 아닌, 현장체험, 자연 느끼기, 도자체험, 옷감(섬유)디자인 체험, 색채디자인, 공공디자인교육 등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소통하는 교육이 주가 되도록 구성되었다(김효정·현은령, 2009, pp.175~177).

수업 전 프로그램의 담당자의 학습자 요구분석 예측은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부각됨에 따라 창의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수강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수업요구 분석도를 통해 조사된 결과는 자녀교육보다는 자신의 미적 감각을 높이고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원한 수강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여성들의 자신만을 위한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부재와 대중교양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5] 참조.

디자인을 통해 미적감각을 높이려고	31명
자녀교육을 위해서	6명
호기심	2명
원래 미술을 좋아해서	6명
취업(디자인교육가, 미술학원 개업등)	4명
총	49명

[표 5] “성동-한양女幸디자인 스쿨” 수강 목적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집된 수강생 49명(5)의 사전 수업요구 분석도를 바탕으로 기존에 자녀교육을 위한 수강생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성하였던 ‘자녀교육을 위한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대신 여성들의 선호하는 ‘컬러마케팅’과 이미지 메이킹 과정을 신설, 추가 하였다.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 [표6] 과 같다.

1	입학식 / 디자인교육 전문가란?: 수업소개와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책임강사, 디자인교육전문가)
2	마음을 여는 Design - 나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창의력 검사)
	*** (창의력검사 전문가, 서울자녀교육포럼 대표)
3	Design경험 I : 디자인의 특성(배분, 계획, 창조) -다양한 재료체험
	*** (프로그램 책임강사, 디자인교육전문가)
4	Design경험 II : 디자인으로 하나 되는 세상 만들기 - 감성교육
	*** (디자이너, 감성교육전문가)

5) 수강생 50명 중 1명은 개인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 결석

5	Design경험 : 디자인으로 하나 되는 세상 만들기 - 공공디자인
	*** (디자이너, 감성교육전문가)
6	Design 상상 I : 머릿속 언어가 눈의 언어로 - 도자체험①
	*** (생활도예가)
7	Design상상 II : 머릿속 언어가 눈의 언어로 - 옷감, 의상①
	*** (의상디자이너, 디자인교육전문가)
8	Design상상 : 머릿속 언어가 눈의 언어로 - 옷감, 의상②
	*** (의상디자이너, 디자인교육전문가)
9	Design상상 : 머릿속 언어가 눈의 언어로 - 도자체험②
	*** (생활도예가)
10	Design상상 III : 생각 알리기, 그리고 공감하기 - 광고디자인 ①
	*** (광고디자이너, 디자인교육전문가)
11	Design 상상 : 생각 알리기, 그리고 공감하기 - 광고디자인②
	*** (광고디자이너, 디자인교육전문가)
12	눈으로 보는 Design, 마음으로 보는 Design - 색채 Design① -이해
	*** (컬러컨설턴트, 컬러코드대표)
13	눈으로 보는 Design, 마음으로 보는 Design - 색채 Design② -연출
	*** (컬러컨설턴트, 컬러코드대표)
14	공유하는 디자인, 정신적인 거리감 -감상교육프로젝트(미술관 체험)
	*** (프로그램 책임강사, 디자인교육전문가)
15	함께 하는 디자인교육-디자인교육과정 정리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 (프로그램 책임강사, 디자인교육전문가)
16	마음을 여는 Design : 창의력 검사결과 / 수료식
	*** (창의력검사 전문가, **자녀교육포럼 대표)

[표 6] “성동-한양女幸디자인 스쿨”주차별 강의내용 (매주 화요일/ 16주/ 일 3시간/총 48시간)

각 차시의 프로그램은 관련 이론의 석사학위이상 차면서 현장경험이 많은 디자인교육전문가에 의해 옴니버스로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인 진행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책임교수 1인과 구청 행정직원 1인이 매주 수업에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구청에서 파견된 행정직원은 수업에 관한 진행과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학습전반에 대한 작업을 기록을 수행하였다. 수업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부터 수행하는 중간의 내용을 언어와 이미지로서 포트폴리오에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이때 내용은 수업초기의 단순한 준비물의 나열에서부터 시작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학습자의 작업에 대한 느낌, 자기반성, 강의평가 등 학습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였다(차경희·현은령, 2010, pp.68~86).

이러한 기록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또한 어떠한 부분을 시행착오가 했는지 짚어 볼 수 있는 확

인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에게 보다 더 학습자 상황에 맞는 작업의 방향을 조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나아가 노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여 학습자 개인의 상황적 환경에 맞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되짚어 반성,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학습자와 교수와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과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되는 아트 프로펠(Winner, 1991)적 형태를 지닌다(김명희·윤쌍용역, 2007, P.15).

특히 강의 평가는 강좌(교육내용)평가 및 교수자 평가를 통해 디자인교육의 연계적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7] 과 같다.

1. 과목에 대한 평가	
1-1	내용 충실도
1-2	흥미유발도
1-3	내용이해도
1-4	교재충실도
1-5	필요점 충실도
1-6	후배기수에 본 강의 추천
2. 교수자에 대한 평가	
2-1	목표제시
2-2	강의에 대한 열의
2-3	디자인교육에 대한 전문성
2-4	보조자료 활용
2-5	논점 설명도
2-6	예시와 요약
2-7	전반적인 평가
*평가산출점수 기준 : 매우 긍정적(5점), 긍정적(4점), 보통(3점), 부정적(2점), 매우 부정적(1점)	

[표 7] “성동-한양女幸디자인 스쿨” 강의평가항목

“성동-한양 女幸디자인 스쿨”에서 가장 차별화되어 개발한 프로그램은 문제의 발견과 문제해결의 모색을 위한 디자인담론 학습과 사고추리 과정이다. 또한 인간 활동의 시초인 자연과 친화되는 공공디자인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체험 프로젝트와 걷기 프로젝트, 사회적인 예술의 실행과 책임을 강조하는 미술관

체험 프로젝트 등 실행 할 수 있는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포트폴리오 제작과정을 통해 디자이너적인 감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디자인담론을 위한 사고추리과정은 기존의 순수미술교육과정에서 강조하였던 개인적 창조성 개발보다는 유기적인 사회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을 연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학습자들은 즉흥적이고 연상적인 아이디어를 목적에 맞게 구성하고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의 기본 개념인 창의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현은령, 2008, p.138). [그림 5] 참조



[그림 5] 여행디자인스쿨 수업장면 및 수료식

5. 사업시행 결과

본 프로그램의 시행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수료자사정결과

출석률을 기초로 한 수료대상자 회의에서 출석률 80%를 달성한 학습자는 총 41명으로 80%의 수료율이 사정되었다⁶⁾. 100% 출석자는 8명이었다.

5.2 강의평가 결과

매 차시 별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정운영에 대한 교육생의 선호수업은 ‘색채디자인’과 ‘도자 체험’, ‘창의력 검사 및 결과’ 등이었다.

반면 ‘광고디자인’이나 ‘감성교육’ 등 일방적인 자료 제시를 통한 이론 강의는 선호하지 않는 수업으로 선택되었다. 즉 결과물이 산출되는 실기수업과 학습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수업일수록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표8] 참조.

6) 신청자 50명중 1명은 수강 중 해외이주로 인한 중도포기, 9명은 출석률 미달로 인한 수료기준 미달됨.(수료율 80%)

강의주제	창의력	도자 체협	색채	광고	디자인 감성
1.과목에 대한 평가 (5점 만점)					
내용충실도	4.83	4.79	4.78	3.88	4.25
흥미유발도	4.72	4.83	4.65	3.65	4.25
내용이해도	4.72	4.79	4.73	3.92	4.38
교재충실도	4.72	4.75	4.65	3.88	4.31
필요점충실도	4.67	4.83	4.65	3.77	4.22
강의추천도	4.67	4.88	4.65	3.69	4.28
평균	4.75	4.81	4.68	3.80	4.28
2.교수자에 대한 평가(5점 만점)					
목표제시	4.30	4.83	4.73	3.88	4.38
강의열의	4.40	4.88	4.77	3.92	4.34
전문성	4.37	4.79	4.77	3.88	4.31
보조자료 활용	4.33	4.79	4.77	3.88	4.38
논점설명도	4.30	4.79	4.73	3.88	4.31
예시와요약	4.23	4.79	4.73	3.54	4.34
전반적평가	4.33	4.83	4.73	3.69	4.38
평균	4.77	4.82	4.75	3.65	4.35
전체 평균	4.31	4.81	4.71	3.78	4.31

[표 8] 여행디자인스쿨 수업내용별 강의평가(*일부)

5.3 수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

학습자와 프로젝트 수행자인 관·학 관계자(교수및 행정담당자)의 수업에 대한 의견수렴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이번 여행디자인스쿨 디자인교육에 참여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되었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심화반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간 정보교류 및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교환 및 의견제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커뮤니티(홈페이지)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프로젝트 수행자인 관·학 관계자의 의견으로는 첫째, 사업 예고시 명확한 예산이나 일정 등이 예고되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을 요망하였다. 둘째, 연속선상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사전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사용의 지나친 제한으로 디자인교육상 필요한 보조인력(튜터)이나 재료의 사용 등이 제한이 있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⁷⁾

본 논문에서 논의되었던 ‘여행디자인스쿨’사업의 성과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디자인교육 학습자 대상을 벗어나 교육 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디자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전문 디자이너를 위한 전문 디자인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창의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교육에서 벗어나 디자인교육의 학습자층을 확장시켰다. 정책대상자(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기초수급자)는 물론 개인사정으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놓친 일반인들에게 대학에서의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지자체와의 대학교육기관의 협력 체제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하는 디자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그동안 지자체의 디자인에 관한 사업처럼 일회성위주의 이벤트 행사이거나 단기간의 교양위주의 특강 형태가 아닌 15주 동안의 장시간 교육을 통해 심도 있는 디자인적 감성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대중 디자인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제공되었다.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의견조사서를 통해 수요자층의 디자인에 대한 입장과 관심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대중 디자인교육을 위한 후속 사업에서도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학습대상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모든 학습자가 만족해하는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에서 소외된 성인 학습자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자 재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업 및 자격교육과정 개발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교육 예비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예술교육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대와 같은 기술의 진보시대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술교육은 자아정체성을 찾게 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객관화 시키는데 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다(고경화, 2004, 19).

7) ‘성동-한양 여행디자인스쿨’은 2009년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본 결론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0년 3월~7월 동안 심화반이 개설, 운영되어 총 19명의 디자인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음.

서울시의 기본 정책의 중심에는 도시의 사회·문화·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디자인의 영향이 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 한국의 하이테크 소비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고도(古都)서울이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국제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만큼이나 디자인 면에서 국제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세계디자인수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평가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그동안 산업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되었던 디자인을 비롯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디자인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구상하는 작업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와 개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디자인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하겠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디자인은 없어도 그만인 사치이고, 전시형 과시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보기이며, 생활이며, 세상이다(박인학, 2010).

사회적 분위기가 디자인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인식하고 많은 제도적 장치가 개설된 만큼 디자이너를 비롯한 티칭 디자이너(Teaching Designer)들이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감성적 사회 커뮤니케이션 융합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화(2004).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서울:학지사, p.19
- 김명희, 윤쌍용 역(2007). '예술교과에서의 수업설계와 평가: Arts Propel 2', 서울: 문음사, P.15.
- 김효정·현은령(2009). TTCT를 통한 디자인교육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5 no.2, 175-177
- 박인학(2010), '공공디자인, 과연 공공의 적인가', 조선일보, 6월8일자
- 차경희·현은령(2010). 'Portfolio Workbook; 포트폴리오디자인하기', 서울;도서출판 일کم, 68~86
- 통계청(2008).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현은령(2008), 개인형 웹 커뮤니티를 적용한 디자인교육에서 피드백 제시유형이 학습자만족도와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38
- Anderson, T(2002). Mandara: Constructing Peace through art. *Art Education*, 55(3), 33-39
- Burnette C(1993). *Design-based education:K-12, Innovation*.
- Lawrence P. Feer(1980), '*Design Analysis and Evaluation*', Department of Design, Syracuse University.
- McFee, J.(1986). Cross-cultural inquiry into the social meaning of art: Implications for art educ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and Cross-Cultural Research in Art Education*, 4, 6-16
- Papanek, V(1985).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2nd ed, Chicago: Academy Chicago pubs, 3-6
- Rheingold, H(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Addison-Wesley, 1993
- Unesco(1969), The arts and Man, paris.
- <http://www.worlddesigncapital.com/> (2009.11.25)
- <http://www.wdcseoul.kr/> (2009.11.25)
- <http://blog.seoul.go.kr/tag/여행프로젝트>(2009.11.25)

8) <http://www.wdcseoul.kr/> (2009.11.25)